

人迎寸口比較脈診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尹暢烈*

A Study on Comparative Pulse Diagnosis of Renying Pulse(人迎脈) and Cunkou Pulse(寸口脈)

Yun Chang-Yeol*

Professor at Dept. of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Objectives : While Comparative Pulse Diagnosis of Renying pulse(人迎脈) and Cunkou pulse(寸口脈) is one of the three major pulse diagnostic methods in 『Huangdineijing』 along with Three Positions and Nine Indicators Pulse Diagnosis(三部九候脈診法) and Cunkou Pulse Diagnosis(寸口脈診法), it has died out in later period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is lost method.

Methods : Annotations of 『Huangdineijing』 were examined along with descriptions of the author's own experience.

Results & Conclusions : Renying is the Renying(人迎) point from the Stomach Channel(ST), while Cunkou is the Taiyuan(太淵) point from the Lung Channel(LU). These two points are compared in order to determine the deficiency and excess of the Zangfu(臟腑). Normal pulses(平脈) are Soft(軟脈) or Moderate(緩脈), while Stirred pulses(躁脈) are Stringy(弦脈), Tight(緊脈), Slippery(滑脈) or Long(長脈). If the Renying is once active where Shaoyang pulse is active, purge the Gallbladder and supplement the Liver. If there is Stirred pulse, purge the Triple Burner and supplement the Pericardium. If the Renying is twice active where Taiyang pulse is active, purge the Bladder and supplement the Kidney. If there is Stirred pulse, purge the Small Intestine and supplement the Heart. If the Renying is three times active, where Yangming pulse is active, purge the Stomach and supplement the Spleen. If there is Stirred pulse, purge the Large Intestine and supplement the Lung. If the Cunkou is once active where the Jueyin pulse is active, purge the Liver and supplement the Gallbladder. If there is Stirred pulse, purge the Pericardium and supplement the Triple Energizer. If the Cunkou is twice active where the Shaoyin pulse is active, purge the Kidney and supplement the Bladder. If there is stirred pulse, purge the Heart and supplement the Small Intestine. If the Cunkou is three times active where the Taiyin pulse is active, purge the Stomach and supplement the Spleen. If there is Stirred pulse, purge the Lung and supplement the Large Intestine.

Key words : Renying pulse(인영맥), Cunkou pulse(촌구맥), comparative pulse diagnosis(비교맥진), Stirred pulse(조맥), deficiency and excess of Zangfu(장부허실)

* Corresponding Author : Yun Chang-Yeol.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Yongun-dong, Dong-gu, Daejeon.
Tel: +82-042-280-2601, E-mail: yooney@dju.kr

Received(October 21, 2019), Revised((October 30, 2019), Accepted(October 30, 2019)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緒論

『黃帝內經』에는 三部九候脈診法, 人迎寸口比較脈診法, 寸口脈診法등을 위시하여 다양한 切脈法이 소개되어 있다. 이중 人迎寸口比較脈診法은 『素問』의 「六節藏象論」 『靈樞』의 「終始篇」, 「經脈篇」, 「禁服篇」등에 기술되어 있는데 陰陽脈의 근본이 되는 즉 양명위경의 人迎穴과 수태음폐경의 寸口를 비교 진단하여 장부의 허실을 파악하는 진단법이다. 그리고 「終始篇」에는 이를 근거로 補瀉를 行하여 장부음양의 균형을 이루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까지 기술되어 있다.

인영촌구비교맥진은 기백으로부터 황제가 전수를 받고 다시 황제가 雷公에게 전수하여 후세에 전해진 것으로 사료된다. 『영추』 48편 「禁服篇」의 내용을 보면 황제가 뇌공에게 전수 할 때 “이것은 선사인 기백께서 비밀스럽게 전수해주신 것이니 사사로이 전하면 안되는 것이다.(此는 先師之所禁이오 坐私傳之也라)”라 하였고 뇌공에게 목욕제계를 하게하고 (子若欲得之면 何不齋乎아) 뇌공이 3일을 재계하고 받기를 청하였으며(乃齋宿三日而請) 또 割臂敵血하고 황제가 친히 축원하기를 “오늘 정오에 피를 마시고 이 방법을 전하노니 감히 이 말을 위배하는 자는 도리어 재앙을 받을 것이다.(今日正陽에 敵血傳方하노니 有敢背此言者는 反受其殃하리라)”라고 하여 목욕제계하고 천지에 삼혈맹세한 뒤에 엄숙한 의식 과정을 통해 전수하고 있는데 이를 보더라도 인영촌구비교맥진법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난경』, 『상한론』, 『맥경』 등에서 이 진맥법을 누락시켜 언급하지 않았고 이의 영향으로 『의학입문』, 『동의보감』 등 거의 모든 후세 의서에서 언급하지 않아 한의학계에서는 거의 死藏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論者는 인영촌구비교맥진법은 장부의 허실을 진단할 수 있는 대단히 간편하면서도 쉬운 방법이고 장부의 허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만 하면 한국전래의 고유침법인 사암침법의 보사방법인 正格, 勝格을 활용하여 질병을 손쉽게 치료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본 논문을 집필하게 되었다. 그러나 역대로 잘못된

주석도 많이 있고 이 잘못된 주석에 현혹되면 원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여러 주석을 참고하되 틀린 것을 바로 잡았고 또 올바른 주석이라도 미진한 것은 보충 설명하여 2천년 동안 사장되었던 음양촌구비교맥진법을 새롭게 드러내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본 논문과 관련돼 선행연구로는 박사현의 3인의 “人迎氣口脈診法의 五行鍼 운용에 관한 고찰”¹⁾, 전용석의 5인의 “氣口人迎比較脈法에 대한 手技脈診과 기기측정치의 상관성 연구”²⁾, 장용우, 임진석의 “황제내경에 나타난 맥진법에 관한 연구”³⁾, 조학준의 “『素問·六節藏象論』의 人迎·寸口 脈診의 셈법과 활용에 대한 연구”⁴⁾ 등이 있으나 본 논문은 위의 논문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내용을 서술하였다.

2. 人迎 寸口의 위치와 기능

人迎의 위치에 대해서는 현재 2개의 설이 양립하고 있다. 하나는 즉양명위경의 人迎穴을 人迎으로 보고 수태음폐경의 太淵穴을 寸口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寸口脈을 左右로 나누어 左는 人迎, 右는 寸口로 보는 견해이다. 후자는 王叔和에게서 비롯되었는데 그는 『脈經』에서 “關前의 1푼은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곳이니 왼쪽은 인영이 되고 오른쪽은 기구가 된다.(關前一分은 人命之主니 左爲人迎이오 右爲氣口라)”⁵⁾하였다. 이 주장은 이동원이 左手의 인영에서 外感을 살피고 右手의 기구에서 內傷을 구별한다고 한 이후 후세에 큰 영향을 미쳐 인영촌구를 비교하여 진맥하는 『영추』 「중시편」의 주석에서

- 1) 박사현외 3인. 人迎氣口脈診法의 五行鍼 운용에 관한 고찰. 대한침구의학회지, Vol.21 No.4, [2004].
- 2) 전용석외 5인. 氣口人迎比較脈法에 대한 手技脈診과 기기측정치의 상관성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Vol.16 No.1, [2002].
- 3) 장용우, 임진석. 황제내경에 나타난 맥진법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Vol.11, No.2, [1998].
- 4) 조학준. 『素問·六節藏象論』의 人迎·寸口 脈診의 셈법과 활용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Vol.30, No.3, [2017].
- 5) 王叔和著. 복주시인민의원 교석. 脈經校釋.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84. pp.16-17.

*원문의 해석과 현토는 論者가 직접 한 것임. 이하 동.

馬蒔와 張志聰 등은 이 주장을 추종하여 원문을 주석하고 있다. 그러나 論者는 이 주장은 『내경』의 經旨에서 벗어난 내용이고 이를 통해서는 인영 촌구를 비교하여 一盛, 二盛, 三盛 등의 맥상을 잡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

『황제내경』의 여러 곳에서 족양명위경의 인영혈을 인영으로 보고 있고 수태음폐경의 태연혈을 촌구로 보고 있다. 『영추』 「寒熱病篇」에서 “頸側之動脈은 人迎이니 人迎은 足陽明也라”하였고 『本輸篇』에서 “임맥 옆으로부터 첫번째 지나는 경맥에서 뛰는 맥이 있는 곳은 족양명위경인데 인영이라고 한다. (一次任脈側之動脈은 足陽明也니 名曰人迎이라)”하였으며 『영추』 「經脈篇」에서 족양명위경의 유주를 설명하면서 “그 지맥은 대영혈로부터 앞으로 나와 인영으로 내려와 후통을 따라 결분으로 들어간다. (其支者는 從大迎으로 前下人迎하여 循喉嚨하여 入缺盆이라)”고 하였다. 위의 내용을 보면 인영은 족양명위경의 인영혈이 된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영의 의미에 대해서 楊上善은 『太素』注에서 “결후의 양쪽은 족양명맥이 오장육부의 기를 맞이하여 받아 사람을 기르기 때문에 인영이라고 한다. (結喉兩箱은 足陽明脈이 迎受五藏六府之氣하여 以養於人故로 曰人迎이라)”⁶⁾고 하였다.

氣口の 위치가 兩手に 있다는 것에 대하여 장개빈은 『유경』 「臟象類」 11장 ‘氣口獨爲五藏主’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그는 氣口에는 3가지 명칭이 있다고 하면서 “수태음은 폐경맥이니 폐는 모든 기를 주관하여 기의 성쇠가 여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기구라고 하고 폐는 百脈을 조회받아 맥이 여기에서 크게 모이기 때문에 맥구라고 하고 맥이 태연혈에서 나와 그 길이가 1촌 9푼이기 때문에 촌구라고 하니 명칭은 비록 셋이나 사실은 하나일 따름이다. (手太陰은 肺經脈也니 肺主諸氣하여 氣之盛衰見於此라 故로 曰氣口오 肺朝百脈하여 脈之大會聚於此라 故로 曰脈口오 脈出

太淵하여 其長一寸九分이라 故로 曰寸口니 是名雖三이나 而實則一耳라)”⁷⁾고 하였다. 위의 내용에서 길이가 1촌 9푼이라 한 것은 난경을 보면 촌관척의 전체 길이를 말한 것이고 寸만의 길이는 一寸임으로 촌구라고 한다고 말해야 옳을 듯하다. 양상선은 “口라고 말한 것은 기가 통하기 때문이다. (夫言口者는 通氣者也일새라)”⁸⁾고 하였다.

다음으로 인영, 기구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추』 「四時氣篇」에서 “기구맥은 陰藏인 오장을 관찰하고 인영맥은 陽府인 육부를 관찰한다. (氣口候陰하고 人迎候陽이라)”하였고 『영추』 「禁服篇」에서 “촌구맥은 속을 주관하고 인영맥은 밖을 주관한다. (寸口主中하고 人迎主外라)”하였으며 『소문』 「陰陽別論篇」에서 “수족삼양경인 소양, 양명, 태양경은 머리(인영) 쪽에서 살피고 수족삼음경인 췌음, 소음, 태음의 3음에 행하고 양명은 表이고 오장육부의 바다이니 또한 氣를 소양, 양명, 태양의 3양에 行한다(太陰은 爲之行氣於三陰하고 陽明者는 表也오 五藏六府之海也니 亦爲之行氣於三陽이라)”고 하였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인영은 양명인 胃腑에 속하여 양을 대표하는 맥임으로 表를 주관하여 소양, 양명, 태양의 3양 맥을 진찰할 수 있고 촌구는 태음인 肺藏에 속하여 음을 대표하는 맥임으로 裡를 주관하여 췌음, 소음, 태음의 3음 맥을 진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촌구맥은 수태음폐경맥으로 오장의 陰을 진단할 수 있고 인영맥은 족양명위경맥으로 육부의 陽을 진단할 수 있다.

촌구맥과 인영맥에서 장과 부를 진찰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또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영추』 「動輸」에서 “위는 오장육부의 바다인데 그 맑은 기운은 위로 올라가 폐에 주입되고 폐기는 태음으로부터 운행하니 그 운행하는 것이 호흡과 함께

6) 李克光, 鄭孝昌 主編. 황제내경태소교주(上).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2005. p.448.

7) 장개빈저. 이남구현토주석. 현토주석유경. 서울. 법인문화사. 2006. p.97.

8) 李克光, 鄭孝昌 主編. 황제내경태소교주(上).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2005. p.448.

왕래한다.(胃는 爲五藏六府之海니 其清氣 上注于肺하고 肺氣從太陰而行之하니 其行也 以息往來라)” 하였고 동편에서 “위기가 폐로 올라가 폐에 주입되면 머리로 올라가는 標悍한 기는 인후를 따라 위로 올라가 칠규로 달려가고 안계를 따라 뇌에 들어가 絡하고 뺨으로 나와 객주인으로 내려오고 牙車를 따라 양명에 합하여 함께 인영으로 내려간다.(胃氣上注于肺하고 其悍氣上衝頭者是 循咽하여 上走空竅하고 循眼系하여 入絡腦하고 出顛하여 下客主人하고 循牙車하여 合陽明하여 并下人迎이라)”고 하였다. 위에서 말하는 胃氣는 12경맥의 순서대로 족양명위경에 이르는 경맥의 기가 아니고 胃에서 肺를 거쳐 머릿속의 뇌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 양명경과 합쳐져서 인영혈로 내려오는 별도의 노선을 말하는 것이다. 또 『소문』 「오장별론편」에서 氣口脈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황제가 물었다. 기구맥은 어찌서 홀로 오장을 진단하는 주체가 되는가. 기백이 대답하였다. 胃는 수곡의 바다이고 육부에서 음식물을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는 大源泉이 됩니다. 수곡이 입으로 들어가면 위에 저장되고 다시 脾의 運化를 거쳐 오장의 氣를 영양합니다. 촌구는 수태음폐경맥에 속하나 胃氣를 布散하고 運行하는 것은 脾에서 하기 때문에 脾臟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따라서 오장육부의 기미는 모두 胃에서 근원하고 장부지기의 변화는 촌구에서 반영되어 나타납니다.(帝曰 氣口 何以獨爲五藏之主 岐伯曰 胃者是 水穀之海오 六府之大源也니이다. 五味入口하면 藏於胃하여 以養五藏氣하고 氣口亦太陰也라 是이로 五藏六府之氣味가 皆出於胃하여 變見於氣口니이다)”

또 『영추』에는 氣口맥과 人迎맥을 짚어서 病的 盛衰와 內傷 外感 등의 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신을 집중해서 동정을 살핀다는 것은 촌구맥과 인영맥을 짚어 그 맥상을 살피는 것이니 맥이 건고하고 성하며 활맥이 나오는 자는 병이 나날히 심

해지는 것이고 맥이 부드러운 것은 병이 장차 나아지는 것이다 (一其形하야 聽其動靜者는 持氣口人迎하야 以視其脉이니 堅且盛且滑者는 病日進이오 脉軟者는 病將下라)”(『영추』 「四時氣」)

“촌구맥인 脈口를 진맥하여 활소긴하면서 침한 경우는 병이 더욱 심하여지면서 속에 있는 것이고, 인영맥의 맥기가 대긴하면서 부한 경우는 그 병이 더욱 심해지면서 밖에 있는 것이다. 맥구가 부활한 경우는 병이 나날이 쇠퇴하여 낮게 된다.(원문은 病日進이라 되어 있으나 『태소』에 의거하여 病日損으로 해석하였다.) 인영이 침활한 경우는 병이 나날이 쇠퇴하여 낮게 된다. 맥구가 활침한 경우는 병이 진행되면서 안에 있고, 인영이 활성하면서 부한 경우는 병이 진행되면서 밖에 있는 것이다. (切其脈口하야 滑小緊以沈者는 病益甚 在中하고 人迎氣大緊以浮者는 其病益甚 在外라 其脈口浮滑者는 病日進하고 人迎沈而滑者는 病日損이라 其脈口滑以沈者는 病日進 在內하고 其人迎脈滑盛以浮者는 其病日進 在外라)”(『영추』 「五色」)

“인영이 성하면서 견한 경우는 한사에 상한 것이고, 기구가 성견한 경우는 음식에 상한 것이다. (人迎盛堅者는 傷於寒이오 氣口盛堅者는 傷於食이라)”(『영추』 「五色」)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촌구맥이 滑小緊以沈하거나 滑以沈하면 陰藏에 陰脈이 더해져 오장의 병이 날로 심해지는 것이고 浮滑하면 陰藏에 陽脈이 나타나 오장의 병이 점차 낮아지는 것이며 인영맥이 大緊以浮하거나 滑盛以浮하면 陽府에 陽脈이 더해져 육부의 병이 날로 심해지는 것이고 沈而滑하면 陽府에 陰脈이 나타나 육부의 병이 점차 나아지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인영맥은 外와 表를 주관하므로 脈盛하면 외감병이고 촌구맥은 內와 裡를 주관하므로 脈盛하면 내상병이라는 것이다.

3. 人迎寸口脈의 比較를 통한 藏府의 虛實診斷

먼저 『영추』 「중시편」의 원문을 소개하고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인영맥이 촌구맥보다 한 배가 더 크면 병이 즉 소양담에 있고 한 배가 더 크면서 조맥이 나오면 병이 수소양삼초에 있다. 인영맥이 촌구맥보다 두 배가 더 크면 병이 족태양방광에 있고 두 배가 더 크면서 조맥이 나오면 병이 수태양소장에 있다. 인영맥이 촌구맥보다 세 배 더 크면 병이 족양명위에 있고 세 배가 더 크면서 조맥이 나오면 병이 수양명대장에 있다. 인영맥이 촌구맥보다 네 배가 더 크고 대맥과 數맥이 나타나면 일양이라고 하니 일양은 음기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거부하니 외격이 된다. (人迎一盛하면 病在足少陽하고 一盛而躁하면 病在手少陽하며 人迎二盛하면 病在足太陽하고 二盛而躁하면 病在手太陽하며 人迎三盛하면 病在足陽明하고 三盛而躁하면 病在手陽明하며 人迎四盛하고 且大且數하면 名曰溢陽이니 溢陽爲外格이라)”

“촌구맥이 인영맥보다 한 배가 더 크면 병이 즉 췌음간에 있고 한 배가 더 크면서 조맥이 나오면 수심주 심포에 있다. 촌구맥이 인영맥보다 두 배가 더 크면 병이 족소음신에 있고 두 배가 더 크면서 조맥이 나오면 수소음심에 있다. 촌구맥이 인영맥보다 세 배가 더 크면 병이 족태음비에 있고 세 배가 더 크면서 조맥이 나오면 수태음폐에 있다. 촌구맥이 인영맥보다 네 배가 더 크고 대맥과 삭맥이 나타나는 자는 일음이라고 하니 일음은 양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니 내관이 되고 내관하여 불통하게 되면 치료하지 못하는 사증이 된다. 인영맥과 태음의 촌구맥이 모두 왕성하여 평소보다 네 배 이상 왕성하면 관격이라고 하니 관격이 된 자는 곧 죽을 수가 있다. (脈口一盛하면 病在足厥陰하고 一盛而躁하면 在手心主하며 脈口二盛하면 病在足少陰하고 二盛而躁하면 在手少陰하며 脈口三盛하면 病在足太陰하고 三盛而躁하면 在手太陰하며 脈口四盛하고 且大且數者 名曰溢陰이니 溢陰爲內關이오 內關不通하면

死不治라 人迎與太陰脈口俱盛하야 四倍以上은 命曰關格이니 關格者는 與之短期라)”

『영추』 「禁服篇」에서 “촌구맥은 속에 있는 오장을 주관하고 인영맥은 밖에 있는 육부를 주관하니 두 개가 서로 응하여 함께 가고 함께 오는 것이 새끼줄을 당기는 것 같아 크기가 균등하지만 봄, 여름에는 인영맥이 약간 더 크고 가을, 겨울에는 촌구맥이 약간 더 크니 이와 같은 것을 평인이라고 한다. (寸口主中하고 人迎主外하니 兩者相應하야 俱往俱來가 若引繩하야 大小齊等이로대 春夏엔 人迎微大하고 秋冬엔 寸口微大하니 如是者를 名曰平人이라)”고 하였으니 인영맥과 촌구맥이 1:1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정상맥이라고 할 수 있다.

인영맥과 촌구맥은 양과 음을 대표하는 맥이고 양과 음은 태극에서 분화된 것으로 같으면 정상이지만 기울어지게 되면 拮抗적으로 작용한다. 부연설명하면 낮이 길어지면 밤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면 낮이 짧아지듯이 인영맥이 커지면 촌구맥이 작아지고 촌구맥이 커지면 인영맥이 작아진다. 즉 태극의 일체관계를 이루면서 변화를 하는데 이를 『소문』 「음양별론편」에서 “소양, 태양, 양명의 삼양은 머리 쪽의 인영에서 살피고 췌음, 소음, 태음의 삼음은 손에 있는 촌구에서 살피니 이른바 태극의 일체관계를 이룬다.(三陽在頭하고 三陰在手하니 所謂一也라)”고 하였다. 그런데 一陽이 三陽으로 분화되고 一陰이 三陰으로 분화하게 되면 三陽과 三陰의 일체관계는 다시 각각 소양과 췌음, 태양과 소음, 양명과 태음이 대립과 조화의 태극관계를 이룬다. 소양과 췌음은 一陽과 一陰으로써 태극의 관계를 이루고 태양과 소음은 태양한수와 소음군화로 水火의 태극관계를 이루며 양명과 태음은 양명조금과 태음습토로 조습의 태극관계를 이룬다. 태극관계라는 것은 대립과 제약 속에서 서로 拮抗작용을 하며 일체관계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오장이 음이 되고 육부가 양이 되어 전체적으로 장부가 음양관계를 이루면서도 각기 표리가 되는 간과 담, 심과 소장, 비와 위, 폐와 대장, 신과 방광, 심포와 삼초가 길항적 태극관계를

이룬다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인영촌구비교맥진법은 길항적으로 작용하는 인영과 촌구를 비교하여 장부의 허실을 진단하는 것으로 이를 「중시편」에서는 “촌구맥과 인영맥을 짚어 음양의 유여부족과 평형과 불평형을 알게되면 천지음양의 성쇠하는 도리를 다 마치게 된다.(持其脉口人迎以知陰陽有餘不足과 平與不平이면 天道畢矣라)”고 하였다.

이제 원문을 살펴보면 하나 하나 설명해 보고자 한다.

인영맥이 一盛하다는 것은 촌구맥보다 1배가 더 크다는 뜻이다. 『영추』 「經脈篇」에서 이를 “盛者是人迎이 大一倍於寸口라”하였고 「禁服篇」에서도 “人迎이 大一倍於寸口라 하였다. 인영과 촌구가 1:1이면 병이 없는 것이고 여기서 一盛은 2:1의 크기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인영맥은 육부의 삼양을 대변하고 一盛은 一陽인 소양을 의미함으로 병이 족소양담경에 있어 膽實證이 된다. 그리고 一盛하면서 躁脈이 나오면 병이 수소양삼초경에 있어 三焦實證이 된다. 躁에 대해 양상선은 “躁는 擾也라”⁹⁾하여 어지럽게 요동치는 것이라 했고 馬蒔와 장개빈은 “躁動”¹⁰⁾¹¹⁾이라 하였으며 張志聰은 “躁者는 陰中之動象이라”¹²⁾하였고 『白話通解黃帝內經』에서는 “脈盛而躁”¹³⁾라고 하여 대동소이하게 주석을 하고 있지만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든다. 최근 들어 일본의 小涼道益은 88搏이상 뛰는 맥을 躁脈으로 보고 그 이하를 平脈으로 규정하였다.¹⁴⁾ 그러나 이 해석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맥이라는 것은 몸에 열이 있으면 많이 뛰는 것이다. 인영맥이 촌구맥보다 一盛하면

병이 족소양담경에 있고(躁하지 않은 맥을 躁脈과 구별하기 위해 이를 편의상 平脈이라 호칭한다.) 躁하다면 수소양삼초경에 있다는 것인데 담낭염이나 기타 담에 열증이 있으면 一盛 平脈이 나오면서도 88회 이상을 뛸 수가 있는 것이다. 다음에 나오는 인영맥이 2盛平脈인 방광과 3盛平脈인 위에 열증과 열증이 있더라도 모두 88회 이상 뛸 수가 있는 것이다. 小涼道益의 주장대로라면 인영맥에서 담, 방광, 위는 열증이 없고 삼초, 소장, 대장에만 열증이 있다는 논리로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유태우는 平脈과 躁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平脈은 맥의 촉감이 부드러운 것, 軟脈, 緩脈類로 陰에 속하는 맥이다.(인체의 上體는 陽·下體는 陰) 靜的인 상태의 脈이다. 비닐봉지에 물을 넣을 때 80~90%정도 넣은 다음에 봉지를 만져보면 촉감이 부드러운 상태가 바로 平脈을 말한다. 平脈은 즉경맥의 병을 진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맥은 陰的으로 뛰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躁脈은 맥의 촉감이 거친 것, 시끄러운 것 즉 동적인 상태의 맥을 말하는데 緊脈, 弦脈, 滑脈, 長脈 같은 촉감이 거칠고 날카로운 脈類를 躁로 판단한다. 躁脈은 手經絡의 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動的으로 뛰는 것이다. 위와 같이 비닐봉지의 예를 들면 110%이상의 물을 넣고 봉지를 만지면 팽팽하고 딱딱한 느낌이 나타난다. 이것이 곧 躁의 형태이다. 즉 맥박의 수와는 전연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¹⁵⁾

論者は 유태우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논자의 경험을 기술하여 보충설명을 하고자 한다. 본인은 肺實한 사람으로 젊었을 때 화장실에서 변을 보면 항상 통증이 없으면서 피가 뚝뚝 떨어져 대장이 허약하다는 것을 알았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설사를 자주하였다. 특히 중국 여행을 할 때 중국음식을 먹으면(중국음식은 대부분 기름지다.) 2, 3일 지나 설사가 나서 많은 불편을 겪었으며 20대 때 대장염

9) 李克光, 鄭孝昌 主編. 황제내경태소교주(上).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2005. p.464.

10) 馬蒔著. 王洪圖 李硯靑点校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북경. 과학기술출판사. 1998. p.57.

11) 李克光, 鄭孝昌 主編. 황제내경태소교주(上).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2005. p.812.

12) 장지충저. 王春陽의 三人点校. 黃帝內經集注 항주. 절강고적출판사. 2002. p.61.

13) 張登本篇著. 白話通解黃帝內經 (5). 서안. 세계도서출판사 안광사. 2000. p.2520.

14) 柳泰佑. 음양맥진법과 보사. 서울. 음양맥진출판사. 1989. p.165.

15) 柳泰佑. 음양맥진법과 보사. 서울. 음양맥진출판사. 1989. p.165~166.

으로 많은 고생을 하였다. 그리고 20세 때부터 가을 중간부터 겨울이 지나 3월에 이르기까지(가을, 겨울은 金水之氣가 왕성한 계절이다.) 해수와 천식으로 크게 고생을 하였다. 그러다 이 인영촌구비교맥진에 관한 내용을 보고 나의 인영맥과 촌구맥을 짚어보니 인영맥은 거의 잡히지 않았고 촌구맥은 강하게 뛰면서 弦緊한 맥상이 나타났다. 이 내용은 이후에 언급할 내용이지만 촌구 3盛躁脉은 肺實證으로 대장허를 동반한다. 이때부터 이 맥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표리상합을 이루는 장과 부가 길항적으로 작용하여 하나가 실하면 다른 하나가 허하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즉 간실하면 담허하고 담실하면 간허하며 폐실하면 대장허하고 대장실하면 폐허하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躁脉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平脈이 부드럽고, 靜的이고 陰的인 상태의 맥으로써(그래서 陰인 足經의 상태를 대변한다.) 軟脈, 緩脈을 띄고 躁脉은 거칠고 動的이고 陽的인 상태의 맥으로써(그래서 陽인 手經의 상태를 대변한다.) 弦脈, 緊脈, 滑脈, 長脈의 모습을 띄고 있다. 인영이 성하다는 것은 육부가 실하고 오장이 허하다는 것이다. 인영이 1성할 때는 족소양담경이 실하고 표리가 되는 족궤음간경이 허하며 躁脉이 나오면 수소양삼초경이 실하고 수궤음심포경이 허하게 된다.

인영이 2성하다는 것은 인영맥과 촌구맥이 3:1의 비율로 뛰는 것이다. 2성 평맥이면 족태양방광경이 실하고 족소음신경이 허하며 2성조맥이면 수태양소장경이 실하고 수소음심경이 허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긴다. 1성, 2성, 3성에 1양인 소양, 2양인 양명, 3양인 태양을 배합하지 않고 2성, 3성에서 양명과 태양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영맥은 양명경의 맥기가 흐르는 곳이므로 양명이 가장 왕성하여 3성이 된다는 것이다.

인영이 3성하다는 것은 인영맥과 촌구맥이 4:1의 비율로 뛰는 것이다. 3성 평맥일 때 족양명위경이 실하고 족태음비경이 허하며 3성 조맥일 때 수양명대장경이 실하고 수태음폐경이 허하게 된다.

인영이 4성하다는 것은 인영맥과 촌구맥이 5:1의

비율로 뛰는 것이다. 이때는 양이 넘쳐난다는 溢陽이 되는데 溢陽이 되면 陰氣가 外出하는 것을 格拒하여 음양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外格이 된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表1. 人迎脈이 盛大한 平躁脉의 虛實

	平脈	躁脉
一盛	膽實, 肝虛	三焦實, 心包虛
二盛	膀胱實, 腎虛	小腸實, 心虛
三盛	胃實, 脾虛	大腸實, 肺虛
四盛	溢陽(外格) 難治	

맥구가 성하다는 것은 오장이 실하고 육부가 허하다는 것이다. 맥구가 1성하다는 것은 촌구맥과 인영맥이 2:1의 비율로 뛰는 것이다. 1성 평맥일 때 족궤음간경이 실하고 족소양담경이 허하며 조맥이 나타나면 수궤음심포경이 실하고 수소양삼초경이 허하게 된다.

맥구가 2성하다는 것은 촌구맥과 인영맥이 3:1의 비율로 뛰는 것이다. 2성평맥일 때 족소음신경이 실하고 족태양방광경이 허하며 조맥이 나타나면 수소음심경이 실하고 수태양소장경이 허하게 된다.

맥구가 3성하다는 것은 촌구맥과 인영맥이 4:1의 비율로 뛰는 것이다. 3성평맥일 때 족태음비경이 실하고 족양명위경이 허하며 조맥이 나타나면 수태음폐경이 실하고 수양명대장경이 허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1성, 2성, 3성에 1음인 궤음, 2음인 소음, 3음인 태음이 순서대로 배합되어 있고 또 촌구는 태음경의 맥기가 흐르는 곳이므로 태음이 가장 왕성한 3성에 배합되어 있다. 맥구가 4성하다는 것은 인영맥과 촌구맥이 5:1의 비율로 뛰는 것이다. 이때는 음이 넘쳐난다는 溢陰이 되는데 溢陰이 되면 陽氣가 內入하는 것은 關閉하여 음양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內關이 된다.

인영과 촌구가 모두 4배이상이라는 것은 두 개를 비교하여 나타나는 맥이 아님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정상맥보다 모두 4배 이상이라는 의미로 음과 양의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死期에

가깝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表2. 寸口脈이 盛大한 平躁脈의 虛實.

	平脈	躁脈
一盛	肝實 膽虛	心包實 三焦虛
二盛	腎實 膀胱虛	心實 小腸虛
三盛	脾實 胃虛	肺實 大腸虛
四盛	溢陰(內關) 死不治	

4. 人迎寸口脈의 比較를 통한 藏府의 虛實補瀉

『영추』 「중시편」의 원문을 소개하고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인영맥이 촌구맥보다 한 배가 더 크면 족소양경을 사하고 족궤음경을 보하되 두 번 사하고 한 번 보하며 매일 한 번 침을 놓고 반드시 맥을 짚어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며 躁脈(疏는躁의 잘못이고 뒤에 나오는 모든 疏도 躁의 잘못이다.)이 나오면 手經인 手足양삼초경과 수궤음심포경을 취하고 맥기가 조화되면 치료를 그친다. 인영맥이 촌구맥보다 두배가 더 크면 족태양경을 사하고 족소음경을 보하되 두 번 사하고 한 번 보하며 2일에 한 번 침을 놓고 반드시 맥을 짚어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며 조맥이 나오면 수경인 수태양소장경과 수소음심경을 취하고 맥기가 조화되면 치료를 그친다. 인영맥이 촌구맥보다 세 배가 더 크면 족양명경을 사하고 족태음경을 보하되 두 번 사하고 한 번 보하며 하루에 두 번 취하고 반드시 맥을 짚어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며 조맥이 나오면 수경인 수양명대장경과 수태음폐경을 취하고 맥기가 조화되면 치료를 그친다. (人迎一盛하면 寫足少陽而補足厥陰호대 二寫一補하고 日一取之하며 必切而驗之하고 疏取之上하며 氣和乃止라 人迎二盛하면 寫足太陽 補足少陰호대 二寫一補하고 二日一取之하며 必切而驗之하고 疏取之上하며 氣和乃止라 人迎三盛하면 寫足陽明而補足太陰호대 二寫一

補하고 日二取之하며 必切而驗之하고 疏取之上하며 氣和乃止라)”

“촌구맥이 인영맥보다 한 배 더 크면 족궤음경을 사하고 족소양경을 보하되 두 번 보하고 한 번 사하며 하루에 한 번 취하고 반드시 맥을 짚어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며 조맥이 나오면 수궤음심포경과 수소양삼초경을 취하고 맥기가 조화되면 치료를 그친다. 촌구맥이 인영맥보다 두 배가 더 크면 족소음경을 사하고 족태양경을 보하되 두 번 보하고 한 번 사하며 2일에 한 번 취하고 반드시 맥을 짚어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며 조맥이 나오면 수소음심경과 수태양소장경을 취하고 맥기가 조화되면 치료를 그친다. 촌구맥이 인영맥보다 세 배가 더 크면 족태음경을 사하고 족양명경을 보하되 두 번 보하고 한 번 사하며 하루에 두 번 취하고 반드시 맥을 짚어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며 조맥이 나오면 수태음폐경과 수양명대장경을 취하고 맥기가 조화되면 치료를 그친다. (脉口一盛하면 寫足厥陰而補足少陽호대 二補一寫하고 日一取之하며 必切而驗之하고 疏而取之上하며 氣和乃止라 脉口二盛하면 寫足少陰而補足太陽호대 二補一寫하고 二日一取之하며 必切而驗之하고 疏取之上하며 氣和乃止라 脉口三盛하면 寫足太陰而補足陽明호대 二補一寫하고 日二取之하며 必切而驗之하고 疏而取之上하며 氣和乃止라)”

인영맥이 촌구맥보다 1배가 더 크면 족소양담경을 사하고 족궤음간경을 보하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족소양담경만을 사하라고 하지 않고 족궤음간경을 동시에 보하라고 한 것은 담과 간이 길항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馬蒔도 “인영이 1성하여 병이 족소양담경에 있으면 담과 간이 표리가 되니 담이 실하면서 간이 허하게 된다고 하였다.(人迎一盛하야 病在足少陽膽經하면 則膽與肝이 爲表裡니 乃膽實而肝虛也라)”¹⁶⁾ 하였고 장개빈은 “간담은 서로 표리가 되고 양이 실하면 음이 허하기 때문에 마

16) 馬蒔著. 王洪圖 李硯靚點校.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북경. 과학기술출판사. 1998. p.58.

땅히 족소양의 府인 담을 사하고 족궤음의 藏인 간을 보해야 한다(肝膽은 相爲表裏니 陽實而陰虛 故로 當寫足少陽之府하고 補足厥陰之藏也라)”¹⁷⁾고 하였다. 이러한 원리에 의하면 인영 2성할 때 방광실 신허하게 되고 인영 3성할 때 위실 비허하게 된다고 마사와 장개빈은 주석을 달고 있다.

이때 二寫一補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인영이 二盛 三盛할 때도 동일하다. 이에 대해 장지충은 “양은 항상 유여하고 음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이다.(陽常有餘而陰常不足也라)”¹⁸⁾고 간단하게 언급하였는데 양상선은 촌구맥이 성할 때 二補一寫와 함께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 보사법은 양성음허하면 양을 2번 사하고 음을 1번 보하며 음성양허하면 음을 1번 사하고 양을 2번 보한다. 그렇다면 양성하면 2번 사하고 양허하면 2번 보하며 음성하면 1번 사하고 음허하면 1번 보하니 양을 치료하는 것이 많고 음을 치료하는 것이 적은 것은 어찌서인가. 음기는 느리고 완만하기 때문에 보사를 서서히 행하는 것이고 양기는 급하고 빠르기 때문에 보사를 단박에 행하여 음을 치료하는 것보다 2배로 한 것이다. (其補寫法은 陽盛陰虛하면 二瀉于陽하고 一補于陰하며 陰盛陽虛하면 一瀉于陰하고 二補于陽이라 然則陽盛得二瀉하고 陽虛得二補하며 陰盛得一瀉하고 陰虛得一補하여 療陽得多하고 療陰得小는 何也오 陰氣遲緩 故로 補寫在漸하고 陽氣疾急 故로 補瀉在頓하야 倍于療陰也라)¹⁹⁾

二寫一補에는 『소문』 「태음양명론편」에서 말한 陽道實함으로 양경은 사법을 위주로 치료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있다고 사료된다.

보사의 선후에 대해서 『소문』 「중시편」에서 “촌구맥이 성하고 인영맥이 허하면 먼저 인영맥을 보하고 뒤에 촌구맥을 사하여 균형을 이루게 하고 촌구

맥이 허하고 인영맥이 성하면 먼저 촌구맥을 보하고 뒤에 인영맥을 사하여 균형을 이루게 한다. (陰盛而陽虛어든 先補其陽하고 後瀉其陰而和之하며 陰虛而陽盛어든 先補其陰하고 後瀉其陽而和之라)”고 하여 先補後瀉해야 한다고 하였다. 장개빈은 이에 대해 “병을 치료하는 자는 모두 마땅히 먼저 정기를 돌아보고 뒤에 사기를 다스려야 하기 때문이니 대개 실증을 공격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허증을 치는 것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이 절의 뜻에서 볼 수 가 있다.(以治病者는 皆宜先顧正氣하고 後治邪氣니 蓋攻實無難하고 伐虛當畏를 於此節之義에 可見이라)”²⁰⁾고 하였다.

보사의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수보사·개합보사·서질보사 등을 제외하고 『영추』 「중시편」에 있는 深淺補瀉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침을 놓을 때(補에 대해 장개빈은 刺의 잘못이라 하였다.) 만일 바야흐로 실하면 심자하고 침자리를 누르지 않아 사기가 모두 나가게 하고 만일 바야흐로 허하면 천자하여 맥기를 기르고 급히 침자리를 눌러 사기가 들어가지 않게 한다. (補須一方實하면 深取之하고 稀按其病하야 以極出其邪氣하고 一方虛하면 淺刺之하야 以養其脉하고 疾按其病하야 無使邪氣得入이라)”

보사를 행하고 난 뒤에는 인영맥과 촌구맥을 짚어 제대로 보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 『영추』 「중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른바 침 아래에 기가 이르면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실증에 사하면 더욱 허하게 되는데 이때의 허는 맥상의 크기는 전과 같되 견고하지 아니하니 견고함이 이전과 같은 자는 비록 기분이 좋다고 말할지라도 병이 아직 제거되지 아니한 것이다. 허증에 보하면 더욱 실하게 되니 이때의 실은 맥상의

17) 장개빈저. 이남구현토주석. 현토주석유경. 서울. 법인문화사. 2006. p.97.

18) 장지충저. 方春陽의 三人点校. 黃帝內經集注 향주. 절강고적출판사. 2002. p.61.

19)李克光, 鄭孝昌 主編. 황제내경태소교주(上).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2005. p.462.

20) 장개빈저. 이남구현토주석. 현토주석유경. 서울. 법인문화사. 2006. p.746.

크기는 전과 같되 더욱 견고하게 되니 맥상이 전과 같으면서 견고하지 않은 자는 비록 기분이 좋다고 말할지라도 병이 아직 제거되지 않은 것이다. (所謂氣至而有效者는 寫則益虛하니 虛者는 脉大如其故而 不堅也니 堅如其故者는 適雖言快라도 病未去也라 補則益實이니 實者는 脉大如其故而益堅也니 夫如其故而 不堅者는 適雖言快라도 病未去也라)”

보사를 제대로 행하고 나면 인영맥과 촌구맥이 1:1로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비록 거의 1:1의 균형을 이루지를 못하고 이전처럼 혹 맥의 크기가 2:1, 3:1 등의 비율을 이루고 있을 지라도 사법을 썼을 때 맥이 不堅하고 보법을 썼을 때 맥이 더욱 견고해졌다면 병이 낮게 되는 것이고 사법을 썼을 때 여전히 견고하고 보법을 썼을 때 여전히 不堅하다면 환자가 느끼는 기분은 좋을지라도 병은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日一取之는 하루에 한번 보사를 행하라는 것이다. 위의 문장을 보면 인영 1성 또는 맥구 1성할 때 치료하는 족소양담경과 족궤음간경, 수소양삼초경과 수궤음심포경은 하루에 1번 보사를 행하고 인영 2성 또는 맥구 2성할 때 치료하는 족태양방광경과 족소음심경 수태양소장경과 수소음심경은 이틀에 1번 보사를 행하고 인영3성 또는 맥구 3성할 때 치료하는 족양명위경과 족태음비경, 수양명대장경과 수태음폐경은 하루에 2번 보사를 행하라고 하였다. 「중시편」에서 “太陰은 主胃하고 大富于穀氣라”하였으니 태음비와 양명위는 穀氣가 풍부한 경맥임으로 하루에 2번 보사를 행해도 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 태음은 多氣小血하고 양명은 多氣多血하며 침치료는 氣를 다스림으로 一日二取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런데 왜 소양과 궤음경은 一日一取하고 태양과 소음경은 二日一取해야 하는가. 양상선은 “궤음은 혈기가 가장 적고 소음은 다음으로 많고 태음은 가장 많으니 궤음 一日一取와 소음 二日一取가 혹 바뀐 것이 아닌가(或經錯耳)”²¹⁾하고 의심하였다. 그러나 인영맥이 성할 때와 촌구맥이 성할

때의 양쪽에서 모두 동일하게 설명하였으므로 『내경』의 문장은 틀리지 않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역대의 주석가들도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단 사람이 없어 인용할 내용은 없지만 논자의 생각으로는 태양과 소음경은 생명의 근원을 이루는 인체의 水火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보사에 신중을 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必切而驗之라는 말은 보사를 행한 뒤에 인영과 촌구의 맥을 짚어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라는 말이다.

躁取之上은 이전의 내경판본에는 躁가 疏로 되어 있어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다. 마시는 “번갈아가며 간담 2경에서 취혈할 것이니 대개 이경과 저경의 혈을 번갈아 가면서 취하는 것을 疏라고 한다(疏而取穴于膽肝二經之上이니 蓋彼此之穴相間之謂疏也라)”²²⁾고 하였고 장개빈은 “疏取之하라는 것은 좀 여유를 가질 것이니 급하게 서둘지 말라(疎取之者는 不宜急也라)”고 하였다. 그러나 『태소』에 躁라고 되어있고 장지총도 “疏當作躁”²³⁾라 하였으며 疏에 ‘거칠다’는 뜻이 있어 역시 ‘거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躁와 상통함으로 여기서는 躁가 확실히 옳다. 躁取之上은 조맥이 나오면 手經을 취하라는 의미이다. 즉 인영맥이 1성하고 躁맥이 나오면 수소양삼초경을 사하고 수궤음심포경을 보하며 인영이 2성하고 조맥이 나오면 수태양소장경을 사하고 수소음심경을 보하며 인영이 3성하고 조맥이 나오면 수양명대장경을 사하고 수태음폐경을 보하라는 말이다. 그리고 촌구맥이 1성하고 조맥이 나오면 수궤음심포경을 사하고 수소양삼초경을 보하며 촌구맥이 2성하고 조맥이 나오면 수소음심경을 사하고 수태양소장경을 보하며 촌구맥이 3성하고 조맥이 나오면 수태음폐경을 사하고 수양명대장경을 사하라는 말이다.

氣和乃止에 대해 장개빈은 “穀氣가 이르면 밭칠 하라”²⁴⁾고 했는데 촌구맥과 인영맥의 편차가 없어

21) 李克光, 鄭孝昌 主編. 황제내경태소교주(上).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2005. p.462.

22) 馬壽著, 王洪圖 李硯靑點校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북경. 과학기술출판사. 1998. p.58.

23) 장지총저. 方春陽의 三人點校 黃帝內經集注 향주. 절강고적출판사. 2002. p.62.

24) 장개빈저. 이남구현토주석. 현토주석유경. 서울. 법민문화사. 2006. p.813.

지고 균형을 이루게 되면 침을 그치라는 해석이 더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맥구가 1성, 2성, 3성 할 때는 모두 二補一瀉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장지충은 “양은 성하게 하되 음은 성하게 해서는 안 된다.(陽可盛而陰不可盛也)”²⁵⁾라는 주석은 믿기가 어렵다. 『소문』 「태음양명론편」에서 陰道虛라 하였으니 음은 쉽게 허하게 되니 음이 비록 실패하더라도 양경처럼 二瀉하지 말고 一瀉만 하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듯하다.

5. 結論

인영촌구비교맥진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인영촌구비교맥진은 『황제내경』에서 三部九候脈診法 寸口脈診法과 더불어 중요시한 3대 맥진법 중의 하나로써 기백이 황제에게 전하고 황제가 뇌공에게 비밀리에 전한 비전맥법이다.
2. 인영은 족양명위경의 인영혈이고 촌구는 수태음폐경의 태연혈이다. 왕숙화가 좌우의 촌구를 좌인영 우기구라 하였는데 이는 내경의 본지에서 어긋나는 말이다.
3. 胃는 오장육부의 바다로써 족양명위경은 육부의 기혈운행을 대표함으로 위경에 있는 인영혈에서 6부의 상태를 진찰할 수 있고 肺는 모든 기를 주장하고 百脈을 조회받고 있어 脈會인 태연혈 촌구에서 오장의 상태를 진찰할 수 있다.
4. 平脈은 부드럽고 靜의이고 陰의인 상태의 맥으로 軟脈, 緩脈이며 足經을 진단하고 躁脈은 거칠고 動의이고 陽의인 상태의 맥으로 弦脈, 緊脈, 滑脈, 長脈이며 手經을 진단한다.
5. 인영맥은 육부의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데 촌구맥보다 1성하면 병이 족소양담에 있고 1성하면서 躁脈이 나오면 수소양삼초에 있으며 2성하면 병이 족태양방광에 있고 2성하면서 躁脈이 나오면 수태양소장에 있으며 3성하면 병이 족양명위에 있고 3성하면서 躁脈이 나오면 수양명위에 있다.

6. 촌구맥은 오장의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데 인영맥보다 1성하면 병이 족궤음간에 있고 1성하면서 躁脈이 나오면 수궤음심포에 있으며 2성하면 병이 족소음신에 있고 2성하면서 躁脈이 나오면 수소음심에 있으며 3성하면 병이 족태음비에 있고 3성하면서 躁脈이 나오면 수태음폐에 있다.
7. 인영이 1성할 때 1양인 소양이 병들고 인영이 2성할 때 2양인 양명이 병들고 인영이 3성할 때 3양인 태양이 병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인영맥은 족양명위경에 속하여 양명의 맥기가 가장 왕성하게 띄므로 태양과 양명의 위치가 바뀐 것이다.
8. 맥구가 1성할 때 1음인 궤음이 병들고 맥구가 2성할 때 2음인 소음이 병들고 맥구가 3성할 때 3음인 태음이 병들어 1음, 2음, 3음의 순서로 병이 들고 또 맥구는 수태음폐경에 속하여 태음맥이 가장 왕성하게 된다.
9. 오장과 육부는 태극의 음양관계를 이루어 길항적으로 작용하고 오장과 육부를 대변하는 촌구맥과 인영맥도 길항적으로 작용한다. 인영 1성하여 소양맥이 성하면 촌구맥의 궤음맥이 그만큼 약해지고 인영 2성하여 태양맥이 성하면 촌구맥의 소음맥이 그만큼 약해지고 인영 3성하여 양명이 성하면 촌구맥의 태음맥이 그만큼 약해진다. 반대로 촌구 1성하여 궤음맥이 성하면 인영맥의 소양이 그만큼 약해지고 촌구 2성하여 소음맥이 성하면 인영맥의 태양맥이 그만큼 약해지고 촌구 3성하여 태음맥이 성하면 인영맥의 양명맥이 그만큼 약해진다.
10. 장부는 길항적으로 작용함으로 인영 1성하여 소양맥이 성하면 담을 사하고 간을 보하며 躁脈이 나오면 手經을 취하여 삼초를 사하고 심포를 보한다. 인영 2성하여 태양맥이 성하면 방광을 사하고 신을 보하며 躁脈이 나오면 手經을 취하여 소장을 사하고 심을 보한다. 인영 3성하여 양명맥이 성하면 위를 사하고 비를 보하며 躁脈이 나오면 手經을 취하여 대장을 사하고 폐를 보하는데 二瀉一補한다.
11. 촌구 1성하여 궤음맥이 성하면 간을 사하고 담

25) 장지충저. 方春陽의 三人点校. 黄帝内經集注 향주. 절강고적출판사. 2002. p.61.

을 보하며 躁脈이 나오면 手經을 취하여 심포를 사하고 삼초를 보한다. 촌구 2성하여 소음맥이 성하면 신을 사하고 방광을 보하며 조맥이 나오면 수경을 취하여 심을 사하고 소장을 보한다. 촌구 3성하여 태음맥이 성하면 비를 사하고 위를 보하며 조맥이 나오면 수경을 취하여 폐를 사하고 대장을 보하며 二補一寫한다.

12. 소양과 궤음이 병들면 一日一取하고 태양과 소음의 병들면 二日一取하고 양명과 태음이 병들면 一日二取하는데 양명과 태음은 穀氣가 유여하기 때문이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9학년도 대전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Daejeon University Research Grants(2019)”

Reference

1. 馬蒞著. 王洪圖 李硯靑點校.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北京. 科學技術出版社. 1998.
2. 王叔和著. 복주시인민의원 교석.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3. 柳泰佑. 음양백진법과 보사. 서울 음양백진출판사. 1989.
4. 李克光, 鄭孝昌 主編. 황제내경태소교주(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5.
5. 장개빈저. 이남구현토주석. 현토주석유경. 서울. 법인문화사. 2006.
6. 張登本篇著. 白話通解黃帝內經 (5). 서안. 세계도서출판서안공사. 2000.
7. 장지충저. 方春陽의 三人點校. 黃帝內經集注항주. 절강고적출판사. 2002.